

통합도서관 운영에 대한 조사연구

An Investigation on the Operations of Joint Use Libraries

김성은, 연세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대학원, todoistobe.kim@gmail.com

김기영, 연세대학교 문헌정보학과, gkim@yonsei.ac.kr

Sungeun, Kim, Graduate Student, Dept. of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Yonsei University

Giyeong, Kim, Dept. of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Yonsei University

본 연구는 학교도서관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여 공공도서관의 기능을 함께 제공하는 통합도서관의 운영 실태를 조사하는데 목적이 있다. 통합도서관의 주요 두 이해관계자인 자치행정기관과 학교에서 통합도서관 업무를 수행하는 실무 사서를 대상으로 각각 전화인터뷰와 면대면 비구조화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공공도서관의 기능 측면에서 통합도서관을 살펴보기 위해 특히 장서와 관련된 운영 측면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통합도서관이 자치행정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으면서도 학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문제점을 발견하였고, 문제 해결을 위한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하여 제안하였다.

1. 서론

통합도서관(Joint Use Library, 혹은 Dual Use Library)은 2000년대 초반 이후로 국내에서 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의 통합 형태로 활발하게 설립되어 왔다. 광철완(2007)의 연구에서 통합도서관에 대해 “두 개 이상의 서로 다른 도서관 운영주체가 상호간 협약에 의하여 동일한 도서관 공간에서 각각의 이용자에게 봉사활동을 전개하는 도서관”이라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통합도서관을 “학교도서관의 장소를 공중에게 개방하여 학교도서관의 기능과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도서관의 기능을 통합하여 제공하는 도서관”으로 정의한다.

통합도서관을 주제로 한 국내의 이전 연구는 주로 학교도서관의 측면에서 접근한 연구가 많았다. 이것은 실제 통합도서관의 운영에 드는 예산지원이 자치정부에서 비롯된다는 점에서 볼 때 한 쪽의 입장을 다루었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통합도서관이 제공해야 할 공공도서관의 기능을 2009년 개정된 도서관

법 제2조 4항에 근거하여 ‘공중의 정보이용, 문화 활동, 독서활동 및 평생교육을 위하여 정보 및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통합도서관이 마땅히 제공해야 할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에 집중하여 문제점과 원인을 제기한다.

이에 서울시의 학교도서관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여 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의 두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도서관 현상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장서를 중심으로 한 운영 과정을 조사하였다. 특히 학교도서관에서 실제로 통합도서관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 사서와 자치정부 행정 직원을 통해 각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살펴보고, 공공도서관 기능 측면에서 통합도서관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2. 연구 방법

통합도서관 현상을 실제 운영 주체인 사서와 자치행정의 입장을 통해 조사하였다. 통합도서관 담당 사서의 입장을 알아보기 위하여 면대면 비구조화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통합도서관을 운영하는 서울시의 서로 다른 지역구 학교 2곳의 담당 사서와 면대면 비구조화 심층 인터뷰를 각각 한 시간 가량 수행하였다. 또한 앞서 사서 인터뷰를 진행한 2개교가 소재한 지역구를 대상으로 해당 구청의 담당 직원과 전화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행정기관의 견해를 대변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 및 규정, 운영계획 등의 자료도 함께 분석하였다.

인터뷰 대상자와 기관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역구, 학교명, 사서 이름 등은 밝히지 않기로 한다. 연구 논의의 진행 편의상 조사 대상을 통합도서관과 자치구 A, B로 구분하여 기술하였으며, 사서자격증을 소지하지 않더라도 실무에서 도서관 사서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도 논의의 편의상 본 연구에서는 사서로 통칭한다.

3. 연구 결과

현행 도서관법(법률 제10558호, 2011.4.5, 일부개정)에 의하면, 도서관의 사회적 책임은 "국민의 정보 접근권과 알 권리 보장"이라 명시하고 있으며, 도서관의 목적은 "자료의 효율적인 제공과 유통, 정보접근 및 이용의 격차 해소, 평생교육의 증진 등 국가 및 사회의 문화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이처럼 도서관에서는 이용자의 정보 요구 해소를 위한 정보 제공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일반적으로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에서 주로 제공하는 도서관자료는 인쇄형태의 장서라고 할 수 있다.

통합도서관은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의 두 가지 역할을 담당해야 하므로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 이용자 각각의 서로 다른 정보 요구를 동시에 해소할 수 있도록 장서를 구성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역할에도 불구하고 본 조사연구를 통해 통합도서관의 장서 운영이 균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을 발견하였다.

3.1 통합도서관의 장서 문제

통합도서관의 장서 운영은 크게 장서 구성, 배열, 주요 이용 장서, 그리고 장서구입 요청시 응대 방식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본 조사연구에서는 두 곳의 통합도서관만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통합도서관이 설치된 학교의 유형과 지리적 위치에 따라 장서 운영 방식이 다르게 나타났다.

먼저 통합도서관 A의 경우는 초등학교이고 거주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장서구성은 대부분 초등학교 대상의 장서로 구성되어 있다. 초등학교와 일반 성인을 위한 서가가 분리되어 배치되어 있었다.

“... 올해 4월에 1차 장서 구입을 했는데요, 그 때 약 500권 정도 구입할 때 이 중에 일반 성인용 도서는 30권이 채 안되게 구입했어요... 여기 서가는 아무래도 학생들 위주로 배열되어 있어요. 초등학교이라도 저학년과 고학년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일반 성인용 도서는 저 쪽에 따로 서가에 배치하고 있구요...”

또한 초등학교라는 특성 때문에 주요 일반 이용자가 학부모이며, 영어 학습 자료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거의 다 영어죠. 영어자료 많이 찾으세요. 그래서 영어 학습 도서, 영어CD 많이 구입하고 있구요... 자료 구입 요청은 현재는 거의 없지만 요청이 들어와도 받아들이진 않아요. 아무래도 일반 이용자라고 해도 어머니들이 주로 오시는데, 누구 요청은 들어주고 누구는 안들어주고 하면 말이 많아지거든요... 대신에 찾으시는 자료랑 비슷한 자료가 있으면 추천해드리고 있어요. 앞으로도 예산 문제 때문에 아마 자료 구입 신청은 안받을 것 같아요...”

반면에 통합도서관 B는 A와는 다소 다른 장

서 운영 행태를 보이고 있었다. 시내에 위치한 실업계 고등학교라는 특성 때문에 주요 일반 이용자는 주변 직장인이고 일부 소수의 지역 주민들이 통합도서관의 이용자로 나타났다.

“... 고등학생이랑 일반 성인이랑 별로 구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장서 구입할 때도 다르게 생각하지 않고 구입하고 있어요... 배열은 분류번호대로 배열하고 있죠. 원래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제가 오기 전부터... 열람 시설이 학생들이랑 외부에서 오는 분들이랑 분리되면 좋겠지만 서가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주요 이용 장서와 장서구입 요청 응대 방식에서도 통합도서관 A와 B간 차이가 있었다. 통합도서관 B는 주로 신간 베스트셀러가 많이 이용되고 있고 장서 구입 요청에 있어서도 대부분 예산 범위 안에서 수용되고 있었다.

“... 예산에서 장서 구입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어차피 고등학생들이나 일반이용자나 이용하는 책에 크게 차이가 없어요. 아무래도 신간 베스트셀러를 가장 많이 보세요. 그렇다 보니까 장서구입 요청이 와도 예산 범위 안에서 대부분 해드릴 수 있죠...”

이처럼 두 곳의 통합도서관을 대상으로 장서와 관련된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운영 방식과 일반 이용자들의 장서 이용 행태에도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2 자치행정기관의 장서 인식

통합도서관이 제공하는 장서는 자치행정기관의 예산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자치행정기관에서 통합도서관의 장서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대한 문제도 중요하다. 자치구 A와 B의 담당자 전화 인터뷰를 통해 두 곳의 자치구 모두 서울시의 운영계획 지침을 따르고 있을 뿐 자체 기준이나 규정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자치구 A: “... 장서 구입 권수에 따라서 영수증이랑 지원금 내역이 맞는지 확인하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장서를 구입하는지는 관여하지 않아요. 학교도서관 담당자한테 맡기는 거죠... 그리고 학교도서관에서도 학생들 위해서 책 사야 하니까요...”

자치구 B: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운영 지침이 있어요, 그거에 따른 예산 집행 내용만 확인하고요, 구체적인 부분까지는 구에서는 안하구요. 세세한 부분은 운영 자율성을 위해서 학교에 맡기고 있어요...”

서울시의 학교도서관 개방 운영 계획을 살펴보면, 장서에 관하여 “총 예산의 30% 이상을 자료 구입비로 집행”할 것을 명시하고 있고, 이외에는 “대출 권 수, 기한, 연체, 분실 및 훼손”에 대한 운영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즉, 자치행정기관에서는 통합도서관 운영을 위한 예산을 지원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운영 되어야 할지에 대한 지침을 내놓지 않고 있다.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핵심 서비스이면서 도서관의 자산으로 여겨지는 ‘장서’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개략적인 지침만을 제공한다.

이것은 자치행정기관에서 통합도서관의 장서 운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나 매뉴얼을 제시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와 같이 각 도서관마다 서로 다른 운영 실태를 보이고 자치행정의 예산을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통합도서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현상의 문제를 잘 보여준다.

3.3 통합도서관 장서 문제의 원인

통합도서관 장서 운영에서 나타난 문제의 원인은 ‘전문성’에서 살펴볼 수 있다. 우선, 통합도서관은 서로 다른 관종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 지역구청과 학교도서관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협력관계를 통해 전문지식

과 노하우, 전문 인력 등을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통합도서관의 이해관계자들은 공공도서관 기능의 측면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내용은 인터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 중 공공도서관 기능을 제공하는 인력으로서의 사서 전문성에 대한 인식과 공공도서관 및 지역구청과의 협력에 대한 필요성 인식에서 나타났다.

통합도서관 A: “... 저는 사서는 아니고요, 중등교사 자격증은 있어요. 예전에 다른 도서관에서 일한 적도 있고요... 그런데 꼭 사서여야만 여기에서 일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공공도서관이랑 협력은 없구요, A구랑은 더 없어요. 여기 근처 공공도서관에서 연락이 온 적이 있긴 한데 우리 학교랑은 상관없는 것 같았어요. 그 뒤로 연락 없었고...”

통합도서관 B: “... 여기 근무하는 사서라고 해서 학교도서관 담당, 공공도서관 담당, 이렇게 나뉘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업무가 다르지 않으니깐... 협력은 없어요. 근처에도 공공도서관 있긴 한데 거기랑은 별개로 운영되니까 상관없는 것 같고요, 구청이랑도 협력은 없어요. 협력이 필요한지도 잘 모르겠구요...”

장서를 중심으로 공공도서관 기능 측면에서 살펴본 통합도서관 전문성 인식의 부재는 실무 사서와의 인터뷰 뿐 아니라 자치구 담당 직원과의 전화 인터뷰, 서울시의 운영 계획 지침에서도 나타났다. 이렇듯 기관과 담당자에 따른 전문성 인식에 대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핵심적인 ‘장서’ 측면에서의 운영 방식과 인식에도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4. 결론

통합도서관은 학교도서관의 확장형이 아니다. 그러나 현재 통합도서관 현상은 예산이

자치행정에서 지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도서관적인 성향이 매우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조사 대상인 통합도서관 A, B 그리고 예산을 지원하는 자치구 A, B 모두에서 발생하는 문제이다. 또한 실제로 통합도서관이 운영되고 있는 현장과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자치행정기관의 전반적인 문제로 봐야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개별 통합도서관의 운영 수준이 아닌, 조직과 도서관 정책 수준에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본 조사연구를 통해 통합도서관의 이해관계자 양측 모두 학교도서관을 개방하는 것만으로도 통합도서관의 운영이 충분히 이루어지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고, 자치구 내에 도서관 담당 정책에 대한 개념이 수립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현재 자치행정기관에서 학교도서관에 지원금을 제공하는 것 이외에는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음을 의미한다. 즉, 현상의 문제가 발생한 원인을 통합도서관에 대한 전문성 부재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통합도서관 현상을 둘러싼 보다 구조화된 연구가 필요하다. 지방정부의 도서관 정책 유무에 따른 실무 운영 실태 차이를 연구하고 이를 통합도서관 현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향후 연구를 토대로 통합도서관에 관련된 이해관계자들 간의 인식 차이를 줄이고, 보다 나은 통합도서관의 정보 서비스 제공을 위한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곽철완. 2007. 통합도서관의 발전과 그 효과.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8(2): 337-352.